

로마사에서 배우는 지도자의 역량

- 콜린 매컬로의 『로마의 일인자』
(교유서가, 2015)를 읽고 -

• • •

김 덕 수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서울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호주 출신 여류 작가 콜린 매컬로가 1990년에 발표한 『로마의 일인자』(The First Man in Rome)가 지난 7월 중순에 강선재 외 3인의 번역자들의 손을 거쳐 '교유서가'에서 3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로마공화정의 몰락 과정과 신흥 지배엘리트의 등장과정을 그린 매컬로의 7부작 '로마의 지배자들' (Masters of Rome)의 1부에 해당한다. '로마의 일인자'는 기원전 110년 새해 첫 날 두 신임 집정관의 취임식 행렬에 '슬며시' 합류하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독재관 카이사르의 조부)와 그의 두 아들 이야기로 시작한다. 로마에서 집정관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전직 경력은 기본이고 이에 더하여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당시 카이사르 가문은 트로이아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아들 율루스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취약해서 집정관을 배출할 엄두도 못내고, 다만 원로원의 말석을 유지할 뿐이었다. 카이사르로서는 두 아들들의 출세 자금이나 두 딸의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가문의 명성이 미미하지만 전도 유망한 신흥 부자와 손을 잡는 것 이었다. 집정관 취임 기념 행렬의 어딘가에 주목도 받지 못한 채 끼어있었을, 본서의 주인공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마리우스는 기원전 157년에 로마 동남쪽 100킬로미터 떨어진 아르피눔에서 태어났다. 마리우스는 재산이 많은 지방 유지였지만 전통 귀족들이 득세하는 로마에서는 "그리스어도 못하는 이탈리아 촌놈" (1권 90쪽)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군사적 재능을 가진 기원전 134년에 스키피오 장군을 따라 히스파니아 누만티아 전쟁에 참가해서 23세의 나이로 강한 인상을 보여주었다. 기원전 119년에는 당시 권력가였던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의 도움으로 호민관이 되었고,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기도 했다. 이후 기원전 115년에 법무관에 오를 수 있었고 임기를 마친 뒤 이듬해에는 히스파니아 속주 총독으로 파견되었고 현지의 반란을 진압하던 마리우스는 그곳에서 광산 경영으로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의 최고 정무관인 집정관직은 돈만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일종의 신흥 세력인 마리우스에게는 로마 전통 귀족 가문의 '후광'이 필요했다. 매컬로의 '로마의 일인자'는

바로 마리우스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카이사르였다. ‘원로원 의석 절반을 사고팔 수 있을 만큼’ 출세에 필요한 재력과 활기를 가진 신흥세력 마리우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딸 율리아와 결혼해 줄 것을 ‘간청’ 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콘술 취임식에 본 마리우스의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 바로 로마를 등에 업고 작금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낼 자라는 확신”(1권 123쪽)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무려 ‘서른 살’이나 나이가 어린 장녀 율리아를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판’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율리아가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점이다. 로마 전통 가문의 딸답게 배우자는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이로써 재정적으로는 열악했지만 전통 귀족의 자긍심을 유지해온 카이사르 가문과 돈과 능력을 동시에 가졌지만 혈통적 배경이 미미했던 아르피눔의 신흥 부자 마리우스와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큰 딸 율리아가 아버지의 권유로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결혼을 하게 된 반면 둘째 딸 율릴라(고대 자료에 근거는 없는 매컬로의 창작 인물)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귀족 출신이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술라를 짹사랑(열여섯 소녀가 술라에게 빠진 이유는 분명치 않다)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결국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혼인에 성공하게 된다. 이로써 당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마리우스와 술라가 카이사르 가문의 사위라는 배경을 얻게 되고 두 사람은 동서지간이 되어 서로의 출세의 길을 다지게 되는데 먼저 그 결합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은 술라의 도움을 받은 마리우스였다.

한편 차남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우렐리아 코타와 결혼하여 두 딸 율리아와 아들 카이사르를 얻는데 아들 카이사르가 바로 훗날 로마를 뒤흔든 독재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이다. 따라서 정략결혼을 통해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독재관 카이사르의 고모부가 되고 카이사르는 마리우스의 처조카라는 인적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로마의 일인자』는 이처럼 카이사르 가문을 매개로 해서 마리우스와 술라가 차례 차례 지배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그린 1500쪽 분량의 역사소설이다. 당시 로마 정치, 사회, 군사, 문화 등을 깊이 연구한 매컬로의 열정과 상상력의 산물이다.

당시 로마는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할 강력한 리더십, 즉 진정한 의미의 일인자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로마의 일인자는 단순히 가장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 즉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의 일인자’, 지

위와 기회가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 제일가는 자를 의미했다. 로마 역사에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 파울루스, 스키피오 아이밀리우스, 그 밖에 열 명 남짓한 자들만이 로마 공화국의 수백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불렸다.” 19년 전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죽는 아래로 로마에는 일인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대내외적 위기는 이제 새로운 일인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원로원의 최고참 의원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스카우루스, 대신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등 구세력을 대변하는 원로원의 지배층은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를 이끌만한 지도력이나 역량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득권만을 수호하려 했다. 기원전 109년 누미디아 왕 유구르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프리카 속주로 파견된 집정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가 그러했는데, 그는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관으로 참전한, 한때는 자기 도움으로 호민관이 된, 마리우스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 때 만난 시리아 출신 무녀 마르타는 마리우스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위대한 운명이요---당신은 총 일곱 번 집정관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로마 제3의 건국자로 부를 거요 당신은 로마를 사상 최대의 위기에서 구해낼 것니까.” 1권 곳곳에서 ‘그리스어도 모르는 이탈리아 촌놈’이라는 경멸적인 조롱을 수없이 받아온 마리우스는 결단의 때가 온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메텔루스의 방해에도 개이치 않고 로마로 와서 기원전 107년 집정관에 출마해서 차석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107년 집정관이 된 마리우스는 취임 다음날 원로원회의를 소집하고 로마가 아프리카, 마케도니아, 갈리아 등 세 곳에서 전쟁 중인 상황과 6만 명의 병사들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징집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린 뒤 “너무나 가난해서 다섯 경제계급에 끼지 못하는 최하층민 중에서 지원병을 모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동안 로마는 스스로 무장능력이 있는 유산 시민들 만이 군대에 징집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원 자체가 고갈되었기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원로원의 반대는 예상대로 강경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평민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를 성사시켰다. 로마 역사상 최초로 재산 조건 때문에 소외된 무산시민들이 폐지어 몰려와서 입대했다. 이로써 그동안 원로원 귀족들로부터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로 무시당해오던 최하층 시민들이 당당히 로마를 수호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하는 ‘일자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재무관 술라의 호위를 받은 총사령관 마리우스는 최종 시민들로 채워진 4개 군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전쟁터로 출병하였다. 각 군단은 로마 역사상 최초로 ‘은 독수리’ 깃발을 앞세워서 통일성과 연대감을 지니게

했다. 마리우스는 술라의 계략으로 유구르타를 생포하고 지지부진하던 유구르타 반란을 진압했다.

한편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테우토네스 족, 김브리 족 등 게르만족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기원전 106년 집정관 퀸투스 세르빌리우스 카이피오가 파견되었다. 전통 귀족 출신인 그는 마리우스가 새로 도입한 모병제 대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5만여 명의 병력을 징집하였으며, 로다누스 강변에 위치한 로마의 교역도시 아라우시오로 진출했고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듬해까지 군대 지휘권을 유지하며 게르만족과 대치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원전 105년 집정관이 된 신흥세력 나이우스 말리우스는 마리우스 방식으로 하층민들과 동맹국 군대 8만 5천 명을 모병하여 게르만 족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파견되었는데 두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현직 집정관인 말리우스에게 있었다. 그러나 카이피오는 신흥 세력인 말리우스의 지휘권에 복종하라는 원로 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성급하게 전공을 세우려 하다가 완패했고, 군사적 전략면에서 무능했던 말리우스의 군대도 게르만족 앞에 무참하게 무너졌다(아라우시오 참패, 2권 283쪽).

아라우시오 참패는 전통적인 로마 귀족들의 배타성과 무능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로마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 즉 로마의 일인자는 바로 마리우스와 같은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우리는 반드시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게르만족을 게르마니아로 몰아날 때까지 그에게 알프스 너머 갈리아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합니다”(2권 292쪽)라고 기원전 105년 집정관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는 외쳤고, 원로원도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아프리카 속주에 나가 있던 마리우스는 부재 중에 집정관에 입후보되었고, 기원전 104년에 수석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 집정관을 지낸 지 3년 만에 마리우스는 인민의 결정에 따라 게르만족의 침입을 저지하라는 특명을 받고 집정관에 재선된 것이다. 전통 귀족의 대변자 누미디쿠스는 탄식했다. “우리가 아는 로마는 죽어 있소. 로마에 출두하지도 않은 사람이 3년 만에 집정관으로 다시 뽑히질 않나 최하층민을 군에 입대시키지 않나...”(2권 335쪽). 그러나 누미디쿠스가 아는, ‘프리무스 인테르파레스’의 로마가 죽은 것이고, 새로운 유형의 일인자를 고대하는 로마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3권에서는 마리우스가 매년 집정관에 당선되어 기원전 100년 6선 집정관직을 역임하기까지의 역사가 다루어지고 있다. 기원전 104년 첫날 2선 집정관 임기가 시작되는 날 로마에서는 마리우스의 개선식과 집정관 취임식이 연이어 치러졌고, 첫 원

로원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동맹들을 달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마리우스는 “게르만족이 이탈리아 갈리아는 물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위협해고 있었고, 이탈리아인은 로마인의 형제나 다름없는데, 로마인의 채무노예가 되어 지중해 연안 로마 영토의 노예를 사역당하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 노예들을 모두 해방해서 로마의 보조군으로 참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층 이탈리아인이 유산층 로마인보다 병사로서 부족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안에 이탈리아의 최하층민이 로마의 최하층민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미 병제 개혁을 통해 로마의 최하층민을 모집하여 유구르타 반란을 해결한 마리우스는 이제 이탈리아 최하층민도 로마의 일원으로 모집하여 부족한 군대 자원을 확보하고 게르만족의 침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4만 명의 최하층민 병사를 이끌고 알프스 너머 갈리아의 드넓은 해안 평야에 도착한 마리우스는 그곳에 진을 치고 게르만족의 침입에 대비했다. 그는 게르만족이 피레네 산맥까지 진출했다가 그곳의 켈트 이베리아 족의 저항에 부딪히면 다시 기수를 돌려 이탈리아로 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들이 오기까지는 최하층민 군대를 동원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운하를 파는 등 공공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저들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네. 게다가 그런 노동은 병사들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마리우스의 생각이었다.(3권 53쪽) 마리우스는 최하층민들을 징집해서 잘 훈련시킨 후 전쟁터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없을 때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무장한 마리우스의 군대는 기원전 102년 가을 아콰이 섹스티아이 전투에서 암브로네스 족 3만 명, 테우토네스 족 8만 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고 원로원과 로마인민은 여전히 전선에 나가있던 마리우스를 이듬해(기원전 101년) 5선 집정관으로, 그것도 수석 집정관으로 선출했다. 또한 기원전 101년에는 보이오릭스가 이끄는 캠브리족을 베르켈라이 전투에서 섬멸했고, 로마 속주에 퇴역군인들을 정착시켜서 필요할 때에는 징집 자원으로 하고, 부재 지주들의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로마 문화를 전파시키는 전초기지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최하층민 퇴역병사들에게 줄 땅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그와 같은 얘기라네. 로마인이든 라티움이든 이탈리아인이든 퇴역 병사 모두를 위한 땅을 밀하는 거야.” 마리우스는 꿈은 더 광대했다. “만약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줄 결세.”(3권 395쪽) 기원전 101년 겨울 6선 집정관으로 선출된 마리우스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로마의 일인자, 이탈리아에서 갈리아인을 격퇴해서 제2의 건국자로 불린 마르쿠스 푸리우스 카밀루스의 뒤를 이어 제3의 건국자로 불리게 되었다. 마리우스에게는 이제 “이탈리아가 곧 로마”였고 그것은 훗날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여전히 원로원의 전통 로마귀족들은 마리우스가 마치 그 토지와 국가가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펴준다고 그리고 그가 ‘로마의 왕’이 되고자한다고 공격했지만 이미 역사는 마리우스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10여 년 동안 마리우스는 새로운 유형의 로마의 일인자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아내자 마리우스의 목표도 사라지고 말았다. 게다가 기원전 100년 여름 57세의 마리우스는 뇌졸중과 발작 증세로 인해 더 이상 정치를 주도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마리우스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반면 마리우스의 재무관으로 경력을 쌓아온 술라가 서서히 자기 시대를 예비하고 있었다. 물론 마리우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동맹국 전쟁의 위기 속에 재등장하고 술라와 내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리아 예언가 마르타가 예언한 7번째 집정관직을 기원전 86년에 맡았지만 취임한 지 13일 만에 71세로 영욕의 세월을 마감했다.

3권 후반부에서 매컬로는 흥미롭게도 술라를 넘어 로마 세계를 또 한 차례 뒤흔들, 그러나 막 태어난 독재관 카이사르도 함께 등장시켜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다. 그해 여름 술라가 처가를 방문하여 카이사르를 낳은 아우렐리아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마지막 부분에 끼어 넣었기 때문이다. 술라에게 아우렐리아는 처 율릴라의 올케이고 아우렐리아에게 술라는 작은 시누이 율릴라의 남편이었다. 마리우스가 큰 시누이 율리아의 남편이면서 카이사르의 고모부였으니 ‘로마의 일인자’는 카이사르 가문의 이야기인 셈이다.

매컬로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3권에서 40쪽에 다룬 마리우스 이야기를 150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에 담았고, 남자들의 활약상 만을 조명한 시오노 나나미와 달리 마리우스의 아내 율리아나 독재관 카이사르의 어머니 아우렐레아 등 로마 귀족 부인들이 남자들의 뒤에서 당시 로마의 가치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다. 사실 전통적인 로마 역사 이야기들은 승자들의 이야기, 남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만 매컬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말하게 함으로써 로마 시대를 좀더 완성도 있게 재구성한 것이다. 로마의 일인자의 저자 매컬로 뿐만 아니라 우리말 번역자 4인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딱딱해 질 수 있는 로마 사회를 좀더 활기있게 만들어 준 것 같기도 하다.

‘로마의 일인자’는 로마 공화정의 붕괴과정을 지배엘리트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세밀하게 묘사한 역사 소설이다. 하지만 로마사 관련 전문용어를 정리한 ‘마스터스 오브 로마’(로마의 지배자들)의 가이드북에서 잘 보여주듯이 이 책은 매컬로가 오랜 기간 로마 역사와 자료들을 탐구한 결과이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소설보다는 ‘역사’에 방점이 찍힌 책이다.

‘로마의 일인자’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기득권만을 고수하려는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 엘리트와 능력은 있으되 혈통이나 신분이 낮아 늘 무시당하던 신흥세력의 대립과정을 보면서 지도자는 과거의 전통이나 인습에 매이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진정한 의미의 일인자라는 교훈을 얻는다. 복잡한 대내외 문제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우파와 좌파라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이다.